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송 다 영*

[요 약]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부양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요인, 가능태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이용행위를 분석한 Andersen-Newman 모델을 기반으로, 총 238명의 가족부양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SAS 6.12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함께, 서비스 이용의사에 있어 다양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중명목 로지스틱 분석(Multinomial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85.9%로 나타났으며 시설보호서비스도 비슷한 수준인 86.9%이었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각각 50%씩 나타난 반면, 시설보호서비스는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9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 발생시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가족이 전담하기보다는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사회적 고용지원제도와 연결시키려는 욕구가 높았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여부는 연령, 부양자와 노인간의 우애관계, 노인부양 가치관과 같은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이나, 노인부양의 경제적 혹은 심리적 부담, 가족내 추가로 돌봐야 할 가족원 유무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의 직접적인 욕구와 연결된 요인(need factors)들이 주요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중 무료 혹은 유료 이용의사를 주요하게 구분하는 것은 가능태 요인(enabling factors)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양자를 대체할 부부양자기 없을수록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자원 방향성과 대책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서비스 이용의사, 노인부양, 재가복지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부양부담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1. 서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일상적인 수발이 요구되는 만성질환 및 중증장애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2,000 가구 5,05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노인인구의 45.6%가 신체적·정신적 제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정경희 외, 2001),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가 건강하지 못한 와병상태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을 장기적으로 돌봐야 하는 부양자들의 문제도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와 함께 가족구조도 핵가족구조로 변해 가는 현실 속에서, 직업 이동의 증가, 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부양이 이제 전적으로 가족 내부에서 가족원(주로 성인자녀나 배우자 등)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분제는 개별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만성질환이나 장기요양노인을 돌보고 있는 부양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이로 인한 가족 내부의 갈등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지적된바 있으며 노인부양에 있어서 사회적 부문의 역할 증대와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증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다(최성재 외, 1999; 최해경, 1991; Kim, 2000).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서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보완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다(김경수, 1997; 한혜경, 1999; Biegel et al., 1993; Jette et al., 1995). 재가복지서비스(community care service)는 정신장애인을 비롯하여 만성질환이나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지역사회내 보호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기존의 시설보호가 가진 재정적 부담 증가와 지역사회와 격리된 시설에 보호된 노인들의 우울, 고독감, 삶에 대한 낮은 의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전하여 왔다. 지역사회 내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착은 노년기 우울증 감소, 생활 의욕 증가, 자녀와의 관계 증진 등 수많은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Jette et al., 1995).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2002)에 의하면, 경증 및 허약 노인을 제외한 재가보호대상 노인을 위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 시설의 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4,012개소, 주간보호 3,697개소, 단기보호시설 1,534개소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전체노인인구 대비 시설 수혜 범위를 계산하면 65세 이상 노인 22,723명당 1개 시설에 불과하다(정경희 외, 2001). 이와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및 사회적 노인보호서비스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이나 전문성에 있어 질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최성재 외, 1999).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욕구나 가족들의 부양부담과 같은 필요상황에 대한 연구들이 수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서비스 이용행위(help-seeking 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사회적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는 서비스 필요도(흔히 복지욕구로 통칭되고 있음)와 이용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정경희 외,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나, 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주를 이룬다(서혜경, 2000; 윤현숙, 2001; 이가옥 외, 1991; 이미진·이가옥, 2001; 차홍봉, 1998). 전체적으로 피부양노인 보다는 부양자(자녀)일수록,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부양부담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높다. 또한 서비스 인지도는 서비스 이용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서비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경우에 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높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노부모 부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일정한 거부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서혜경, 2000; 윤현숙, 2001). 그러나 이들 연구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나 이용과 연관된 태도를 직접 변수화 하지 않아서 해석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서구에서도 지적되어 왔던(Bass & Noelker, 1987; Young et al., 2002; Stommel et al., 1992) 부분으로,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하고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을 강조해왔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최혜경, 1991; 이해원, 1995).

본 연구는 노인들에 대한 일차적인 수발역할이 여전히 가족들, 특히 성인자녀들에게 놓여있으며 가족부양자의 사회적 및 가족적 상황이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설보호 및 재가복지 등 각종 사회적 노인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고용지원정책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한 후,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의 대표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의사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이용하지 않겠다,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기존에서 이용여부로 나누었던 이용의사를 보다 세분화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부양지기 갖는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어떻게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서비스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자체의 접근성, 서비스 이용절차의 편리성, 서비스 내용의 만족도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석상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7.1%로 UN이 제시한 고령화사회 기준을 넘어섰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도 경제활동인구의 그것을 훨씬 상회하여 2020년에는 15.1%에 이른다는(통계청, 2001)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에 따른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중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동시에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

업이나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가복지서비스 이용행위 모델

Andersen & Newman(1973)은 서비스 이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유용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의 분석들은 지금까지 의료서비스는 물론 정신건강서비스 및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행위에 관한 연구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이들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패턴(service utilization)은 크게 기술 수준, 보험 환경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원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연관된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되는데, 서비스 이용여부, 지속성, 빈도 등과 같은 이용행위(help-seeking behavior)는 개인적 차원의 설명력을 강조하였다(Andersen & Newman, 1973; Andersen, 1995). Andersen과 Newman(1973)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 가능태 요인(enabling factor), 욕구요인(need factor) 등 세가지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선행요인¹⁾은 특정 케이스의 질병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전제된 경향을 의미하는데, 크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신념체계, 가치관, 행위 및 태도 등을 말한다. 가능태 요인은 서비스 사용을 원활케 하거나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예를 들면, 임금, 의료보험 등)이나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등이다. 욕구 요인은 개인이나 전문가가 진단하는 의료 및 기타 다른 서비스의 요구정도로, 건강상태나 부담 및 고통정도 등이 포함된다.

Bass & Noelker(1987)은 Andersen과 Newman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행위에 적용하면서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연구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Bass & Noelker는 Andersen과 Newman 모델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와 부양상황을 분석물에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력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가족수발과 연관된 변수(family-related factors)를 포함시켰다. 이들에 의하면, 가족부양자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을 결정하는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선행요인, 가능태 요인, 욕구요인의 각 수준에 연관되어 서비스 이용여부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가족수발자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관련 태도, 부양의 심리적 부담감, 가구 소득수준, 부양자의 원조여부, 서비스 접근도가 서비스의 이용여부나 이용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ss & Noelker, 1987). 이들 연구자들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국가 및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공식적 부양체계와 가족 및 친구

1) 기존연구에서는 predisposing factors를 소인성 요인으로 해석하였으나(윤현숙, 2001),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어떤 특정 사건(예, 서비스 이용)이 발생하기 전부터 가져왔던 일정한 경향성과 인구학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행요인'으로 명칭하였다.

등이 제공하는 비공식적 부양체계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Bas & Noelker, 1989, 이해원, 199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사회적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착화하는 과정은 노인부양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가족이나 친척과의 연계성 속에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가족부양자의 노인부양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선행요인, 가능태 요인, 욕구 요인 등으로 나뉜다. 이중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결정요인은 욕구요인으로, 노인의 일상생활동작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IADL)과 함께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련된 변인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건강문제가 심각하거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수준이 떨어질수록, 가족부양자들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부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높아지며 이용할 경우 지속성이나 이용횟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ss & Noelker, 1987; Biegel et al., 1993; Calsyn & Roades, 1993; Houde, 1998; Kosloski & Montgomery, 1994; Miller & McFall, 1991).

다음으로 가능태 요인 중 소득수준은 해당서비스가 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사나 이용량에 정적으로 혹은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공식적 보호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소득수준이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이용도는 낮아지는 반면 일단 서비스를 선택한 후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횟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ss & Noelker, 1987; Norgard & Rodgers, 1997). 소득수준 이외에도 가족 내에 부양자를 도와줄 부부양자가 있는가의 존재여부 등도 서비스 이용의사와 영향을 미치는데, 부부양자가 있을수록 서비스 이용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ss & Noelker, 1987; Miller & McFall, 1991). 또한 가능태 요인중 서비스 인지도는 일관되게 서비스 이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안과 같은 소수민족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이것의 이들의 이용도를 낮추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Calsyn & Roades, 1993; Mindel & Wright, 1982; Moon et al., 1998; Starrett, et al, 1989; Young et al., 2002).

선행요인은 서비스 이용에 즉각적인 욕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부양자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인지도가 높아서 이것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Calsyn & Roades, 1993). 또한 가족부양자들이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가치관, 태도 등은 서비스 이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부양자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아년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한다(Moon et al., 1998; Stommel et al., 1992)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내의 인구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와 이용의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가옥 외(1991)의 재가복지서비스 중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의사는 노인들 자신보다는 가족부양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중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가 23.2%이었으며 이용의사가 있는 노인 중 유료서비스라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46.4%인 반면, 가족부양자 중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는 29.6%로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72%에 이르렀다. 부양자의 가구소득수준도 중요한 요인으로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의 직접적인 필요요구를 불러일으키는 노인의 만성질환 유무나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숙(2001)은 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외에도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반찬배달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와 필요도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필요도(felt need)와 이용의사(expressed need)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필요도는 매우 높음에 비하여 이용의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찬배달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부양자의 사회적, 정서적 부양부담이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의향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서비스에 대한 일차적 필요보다는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서비스 인지여부, 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일수록, 부양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녀일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서비스 필요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로 연결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장기요양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를 조사한 연구들은 노인수발과 연관된 부양의 어려움에 의한 필요요인이 서비스 이용의사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서혜경, 2000; 차홍봉, 1998). 서혜경(2000)은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질수록, 부양자가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일수록, 서비스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가진 노인을 돌보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연구한 차홍봉(1998)에 의하면 가족의 부양부담이 서비스 이용의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부양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서비스 이용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국내의 연구결과도 서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의 건강상태나 부양자의 부담과 같은 욕구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가구의 소득수준 또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의사가 높아지는 반면, 일반 재가노인을 수발하는 가족부양자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수준과 서비스 이용의사간 관계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필요도는 높음에 비하여 서비스 이용의사는 낮은 것과, 서비스 인지도가 서비스 이용의사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요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족부양자가 이전부터 가져온 사회적 노인보호서비스 이용이나 부모를 부양하는 의식 및 태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보인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혜원(1995)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태도와 인식이 주요한 빈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에 대한 태도요인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에 의하면, 노인이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수용할수록,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신뢰할수록, 가족수발보다 사회적 수발을 선호할수록,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부양자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서비스 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결과에서 일치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서혜경, 2000; 윤현숙, 2001). 서혜경(2000)과 윤현숙(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용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서비스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복지서비스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나 부양자가족의 의식과 태도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Andersen-Newman의 의료서비스 이용행위 모델(Andersen & Newman, 1973; Andersen, 1995)을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적용한 Bass & Noelker (1987)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Andersen-Newman의 모델은 이미 의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행위를 분석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 노인부양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행위에 적용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이혜원, 1995; 윤현숙, 2001; Bass & Noelker, 1987; Calsyn & Roades, 1993; Moon et al., 1998).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노인이 만성질환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할 경우 노인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는 이용하지 않겠다,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등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으로는 (i) 가족부양자의 연령, (ii) 부양자와 노인과의 친밀 관계, (iv) 노인부양 가족주의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가능태 요인

(enabling factors)은 (i) 가구소득, (ii) 서비스 인지여부, (iii) 타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여부가 포함되었다. 타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여부는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주부양자를 대체할 수 있거나 상시적으로 도와주는 부부양자 여부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욕구 요인(need factors)으로는 부양자의 부양상황, 노인의 건강상황, 부양자의 부양부담으로 내용적으로 분류한 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양자의 부양상황은 부양자의 취업여부, 건강상태, 부양기간 등으로, 노인의 건강상황은 피부양노인 실환/상에 여부와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부양자의 부양부담은 노인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 노인부양 이외의 추가년 보호 역할이 있는 가 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청 및 구청 공무원 중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스칼에 있어 일차적인 부양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무원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공무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 규정상 부모부양수당(월 15,000원)을 받은 유일한 집단으로 부양의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위상 직급이 분화되어 있어서 소득분포상 여러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2002년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 조사 및 수집에 관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시청 및 구청과의 사전 공문과정에서 얻어진 조사해당 가구에 선화를 걸어 설문조사 협조요청을 한 후, 가정이나 식당으로 방문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재(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83)

항목	내용	빈도(%)	내용	빈도(%)
연령	30세 미만	6(2.1)	30-39세	120(42.9)
	40-49세	140(50.0)	50-59세	13(3.6)
	60세 이상	1(0.4)	평균	40.2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8(2.9)	고등학교 졸업	128(45.2)
	전문대학 졸업	48(17.0)	대학교 졸업 이상	99(34.9)
가구수입	100만원 미만	1(0.4)	100-200만원 사이	35(12.4)
	200-300만원 사이	124(43.8)	300-400만원 사이	74(26.1)
	400만원 이상	49(17.3)		
건강상태	아주 나쁘다	2(0.7)	나쁜 편이다	30(10.7)
	보통이다	175(62.3)	좋은 편이다	69(24.6)
	아주 좋다	5(1.8)		
취업여부	취업	169(59.6)	미취업	114(40.4)

조사대상자인 가족부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40.23세로, 40~49세 50%, 30~39세 42.9%이었다(〈표 1〉 참조). 교육정도는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졸 이상이 34.9%, 전문대졸이 17.0% 순으로 학력수준이 높다. 가구소득수준은 200~300만원 사이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400만원 사이 26.1%, 400만원 이상 17.3% 등이다. 또한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62.3%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적 건강하다는 26.4%, 나쁘다는 11.4% 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가 169명(59.6%), 비취업자가 114명(40.4%)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부양 상황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양하는 노인의 수는 1명이 67.4%로 가장 많았고, 2명이 31.6%, 3명 이상이 1.1%이다(〈표 2〉 참조). 피부양노인의 연령은 평균 73.03세로, 65~69세 이하 33.3%, 70~74세 29.1%, 75~79세가 19.9% 등이었으며 80세 이상 고령자는 17.8%이다. 부양기간은 10년 이상이 전체의 약 4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는 5년-10년 사이가 21.91%로 나타났다. 피부양노인의 소득수준은, '소득이 전혀 없다'가 57.4%, '있다'가 42.6%로 나타나 노인 3명중 약 2명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노인 중 69.3%(198가구)은 1개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문제는 질병 97.35%, 신체장애 7.94%, 치매 5.29%, 정신장애 1.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피부양자 노인의 일반적 상황

항목	내용	빈도(%)	내용	빈도(%)
피부양노인 수	1명	190(67.4)	2명	89(31.6)
	3명 이상	3(1.1)		
피부양노인 연령	65세-69세	96(33.3)	70-74세	82(29.1)
	75-79세	56(19.9)	80-84세	34(12.1)
	85세 이상	16(5.7)	평균	73.03
노인부양기간	1년 미만	24(8.48)	1-3년 사이	43(15.19)
	3-5년 사이	42(14.84)	5-10년 사이	62(21.91)
	10년 이상	112(39.58)		
피부양노인 소득	전혀 없다	162(57.4)	있다	120(42.6)
건강문제	없다	94(33.2)	있다	189(66.8)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장기요양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의사이다.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 여부를 (i) 이용하지 않겠다, (ii) 무리라면 이용하겠다, (iii)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표 3 참조).

(2) 독립변수

①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선행요인에는 가족부양자의 연령, 부양자와 노인과의 우애 관계, 부양자의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등이 포함되었다. 부양자와 노인과의 우애관계는 부양자가 인지하는 노인과의 친밀관계로 같음이 없고 친밀하다고 느끼는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하였다. 부양자의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노인부양에 연관된 가족주의 가치관(familism)은 옥선화(1986)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우선성, 부모공경의식, 부모봉양의 성별분업 역할 의식에 대한 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0.67이다.

② 가능태 요인(enabling factors)

가능태 요인에는 가구소득, 가족부양자의 서비스 인지여부,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포함되었다. 가족부양자의 서비스 인지여부는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 '1', 모르고 있는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타 가족이나 형제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 정도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노인부양에 있어 부부양자 유무는 주부양자를 상시적으로 도와주거나 수발을 돕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가의 여부(1=있다, 0=없다)로 측정하였다.

③ 욕구 요인(need factors)

욕구요인에는 가족부양자의 부양상황과 연관된 변인, 피부양노인의 건강상태, 노인부양의 부담 변인이 포함되었다. 가족부양자의 부양상황은 가족부양자의 취업여부(1=취업, 0=비취업), 가족부양자의 건강상태(1=아주 나쁘다, 5=매우 좋다), 가족부양자의 부양기간이 측정되었다. 피부양노인의 건강상태는 질환이나 장애를 가졌는지의 여부(1=있다, 0=없다),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측정되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ADL 6개 항목 중 제한 받는 항목수의 합으로 0-6까지 해당된다. 노인부양의 부담 정도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심리적 부담 함께 가족내 추가적 보호 요구가 있는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제적 부담은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계부담정도로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부담이 없다, 4=상당히 부담이 간다). 심리적 부담은 노인부양으로 인한 심리적 제약과 시간상 제약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Kosberg (1986)를 바탕으로 한 4점 척도 8개 항목의 종합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0.89 이다. 가족내 추가보호 여부는 가족내에 노인이외에 돌보아야 할 4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질환자가 있는 가를 물어보았으며,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는 총 298 가구가 설문에 응하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가구를 제외하고 총 283개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SAS 6.12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기술통계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Chi-Square)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초점인 재가복지서비스 선호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명목 로지스틱 분석(Multinomial Logistic Analysis)을 하였다. 다중명목 로지

스틱 분석은 2개 이상의 서열이 명확치 않은 명목변수로 구성된 종속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방법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간 확률에 기반한 로지스틱 분석을 확대 적용한 통계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경우, 무료일 경우에만 사용하겠다는 경우,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Odds Ratio로 측정하였다. 다중명목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세가지 경우(이용하지 않겠다-무료라면 사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유료라도 사용하겠다, 무료라면 사용하겠다-유료라도 사용하겠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 수	측 정
〈종속변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	0=이용하지 않겠다, 1=무료라면 이용, 2=유료라도 이용
〈독립변수〉 선행요인	
부양자 연령	나이
부양자-노인간의 친밀관계	1=친밀한 관계라고 보는 경우, 0=그렇지 않은 경우
부양자의 노인부양 가치관	노인부양가치관 5개 항목의 총합(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가능태 요인	
소득수준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3=200-300만원, 4=300-400만원, 5=400만원 이상
서비스 인지여부	1=서비스 알고 있다, 0=모르고 있다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족/형제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정도(1=전혀 받지 않는다, 4=상당히 많이 받는다)
부부양자 유무	1=있다, 0=따로 없다
욕구 요인	
부양자 취업여부	1=취업, 0=비취업
부양자 건강상태	5점 척도(1=아주 나쁘다, 5=아주 좋다)
부양기간	1=1년 미만, 2=1-3년 사이, 3=3-5년 사이, 4=5-10년 사이, 5=10년 이상
피부양노인 질병/장애문제	1=있다, 0=없다
피부양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6개 항목중 제한 받는 항목수 총합 (0-6)
부양의 경제적 부담	노인부양 가계부담정도(1=전혀 부담없다, 4=상당히 부담이 된다)
부양의 심리적 부담	노인부양으로 인한 심리적 제약 8개 항목의 총합(1=전혀 그렇지 않다, 4=자주 그렇다)
가족내 추가된 보호요구 여부	가족내 4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질환자 등의 추가적 보호요구 여부(1=있다, 0=없다)

4. 연구결과

1) 사회적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알아본 결과,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시설보호서비스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모른다 33.2%, 안다 65.0%, 알고 이용한 적 있다 1.8%로 나타났으며, 시설보호서비스는 모른다 10.2%, 안다 89.8%로 나타났다. 1987년에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하여 도입된 재가복지서비스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여전히 지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재가복지 및 시설보호 서비스 인지도

단위: 명, %

	모른다	안다	알고 이용한 적 있다	계
재가복지서비스	94(33.2)	184(65.0)	5(1.8)	283(100.0)
시설보호서비스	29(10.2)	254(89.8)	0(0.0)	283(100.0)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사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상황이 관계없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14.1%이었으며,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경우는 85.9%이었다.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44.9%,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55.1%로 나뉘어진다.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는 '이용하지 않겠다' 13.1%, '이용하겠다' 86.9%로 재가보호서비스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시설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재가보호서비스의 그것과 차이가 난다. 시설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유료라도 사용하겠다'(91.1%)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기존연구 결과들과 유사한데, 노인간병가족의 요양시설서비스 이용의사를 조사했던 이인정(2001)에 의하면 약 60%가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20-30%선에 머물고 있다(서혜경, 2000; 윤현숙,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부양가족의 이용의사가 상대적으로 시조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주관 유료시설로 비용이 저렴한 곳을 이용하겠다' 49.1%, '정부주관 유료시설로 비용이 들어도 서비스 질이 좋은 곳을 이용하겠다' 34.7%로 약 80%는 정부주도를 원하고 있었다. 민간주도 유료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민간

주도 유료시설로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겠다' 4.1%, '민간주도 유료시설로 비용이 들어도 서비스 실이 좋은 곳을 이용하겠다' 2.9%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을 모시는 적지 않은 가구에서 재가 보호서비스나 시설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나 비용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노인을 돌보기 위한 보다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증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표 5〉 재가복지 및 시설보호 서비스 이용의사와 이용방식

	항 목	빈도(%)	
재 가 복 지 서비스	이용하겠다	243(85.9)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109(44.9)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134(55.1)
	이용하지 않겠다	40(14.1)	
시 설 보 호 서비스	이용하겠다	246(86.9)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22(8.9)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224(91.1)
	이용하지 않겠다	37(13.1)	

2) 노인부양의 장기요양 요구에의 대처방안

또한 고령화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노인들의 만성질환이나 중증장애에 대한 대처 방안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었다(〈표 6〉 참조).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상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노후와 병수발에 대한 자식이나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거부감과 배척이 존재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장기요양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전적으로 자식으로서 책임진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장기요양문제를 가족내에서 보다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자식으로서 전적으로 보살피도록 하겠다' 12.7%, '주로 내가 보살피고,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간병서비스로 해결하겠다' 55.8%, '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살피 드리겠다' 14.8%, '(전문) 요양시설이나 전문노인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 12.4%로 나타났다. 여전히 부모부양에 대해서는 자식으로서 돌봐드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보살핌의 방식에 있어서 점차 다양해져가고 있는 양상이 보인다. 부모가 1년 이상 병들어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노인부양을 점차 사회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와 연결시키거나 하는 욕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맥락을 같이한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이상 학력자가 전적으로 보살피기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높았다. '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살피 드리겠다(19.8%)', '간병서비스를 다양하

게 이용하여 부모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다(6.0%)' (전문)요양시설이나 전문노인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13.6%)' 등의 항목에서 모두 고등학교 이하 조사대상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인요양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직무의 속성이나 직장과 가정의 분리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전적으로 보살펴드리겠다고 하는 비율(22.8%)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면 취업한 경우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주로 내가 보살피고,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간병서비스로 해결하겠다(58.3%)' 항목은 비취업 여성의 응답비율(52.6%)보다는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살펴 드리겠다(19.6%)'에서는 비취업자의 응답 비율(7.9%)의 2.5배에 이른다.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간병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취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병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부모의 장기요양 필요시 대처방안

단위: 명, %

	학력별		취업여부별		계
	고졸이하	대졸이상	비취업	취업	
자식으로서 전적으로 보살피도록 하겠다	21(15.4)	15(10.2)	26(22.6)	10(5.9)	36(12.7)
주로 내가 보살피고,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간병서비스로 해결하겠다	84(61.8)	74(50.3)	60(52.2)	98(58.8)	158(55.8)
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살펴 드리겠다	14(10.3)	28(19.1)	9(7.8)	33(19.6)	42(14.8)
간병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부모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다	2(1.5)	10(6.8)	6(5.2)	6(3.6)	12(4.2)
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	15(11.0)	20(13.6)	14(12.2)	21(12.5)	35(12.4)
전 체	$X^2=11.94, p<0.05$		$X^2=22.22, p<0.001$		283(100.0)

다음으로 조사대상자 본인이 노인이 되어 병으로 눕거나 치매에 걸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모 부양에 있어서의 태도와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표 7〉 참조). '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을 이용하겠다'가 39.6%, '여러 간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겠다'가 27.2%, '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녀가 나머지를 돕도록 하겠다'가 19.1% 등으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인 87%가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장기요양대처방안에 대해 68%의 사람들이 자식으로서 전적으로(12.7%), 또는 주로(55.8%) 부모를 보살피겠다고 한 것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 본인의 장기요양 대처방안은 학력별이나 취업여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모부양 방식으로는 선호하지 않았던 전문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이 본인의 장기요양 대처방안으로는 선호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심리적 거부감 짐차 줄어들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

하는 선택중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장기요양으로 인해 겪는(혹은 겪게 될) 부양의 어려움이나 제약을 자식들에게는 넘기고 싶지 않는 심리적 거부도 깔려있다고 보인다.

〈표 7〉 본인의 장기요양 필요시 대처방안

단위: 명, %

	학력별		취업여부별		계
	고졸이하	대졸이상	비취업	취업	
자식이 전적으로 보살피도록 하겠다	2(1.47)	4(2.7)	4(3.48)	2(1.2)	6(2.1)
주로 자식이 보살피고, 힘이 키치지 않을 부분은 간병서비스로 해결한다	16(11.8)	18(12.2)	16(13.9)	18(10.7)	34(12.0)
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녀가 나머지를 한다	26(19.1)	28(19.1)	21(18.3)	33(19.6)	54(19.1)
여러 간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겠다	37(27.2)	40(27.2)	32(27.8)	45(26.7)	77(27.2)
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 등을 이용하겠다	55(40.4)	57(38.8)	42(36.52)	70(41.76)	112(39.6)
전 체	$X^2=2.48$		$X^2=4.29$		283(100.0)

3) 노인부양관련 장기요양보험 및 사회제도적 지원 요구도

고령화사회의 문제로 등장한 만성질환이나 중증장애를 가진 노인들에 대한 부양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다수(92.2%)가 보험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바람직한 정착방안으로는 사보험 9.81%, 사회보험으로 하되 개인부담을 늘리는 방안 23.8%, 사회보험으로 하되 정부부담을 늘리는 방안 71.9%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구단위의 경제적 부담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노인부양을 하는 가족구성원이 부양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해 나갈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노인부양과 취업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파트타임제, 출퇴근 연동제/원격근무제도, 가족간호휴가제, 청원휴직제, 휴직 후 업무복귀 보장, 노인부양이나 가족케어로 인해 장기간 직업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특성화된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알선, 모든 가족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교육 등에 대해 대다수의 조사대상자(90% 이상)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향후 고령화사회 노인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가족원의 취업생활병행 부담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표 8〉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및 정착방안에 대한 견해

항목	빈도(%)	
노인부양은 보험보다는 자식이 책임시는게 낫다	22(7.8)	
노인부양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이 정착해야 한다	259(92.2)	사회보험보다는 사보험이 바람직 8(8.1)
		사회보험으로 하되 개인분담 ↑ 62(23.8)
		사회보험으로 하되 정부분담 ↑ 187(71.9)
		기타 2(0.8)

4)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선행요인, 가능태 요인, 욕구요인이 영향을 골고루 미치고 있었다(〈표 9〉, 첫 번째 부분 참조). 전체적으로는 부양자와 노인간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수록,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전통적이지 않은 사람일수록, 노인부양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높을수록, 가족내에 추가적인 가족보호가 있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보다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양자가 노인과 친밀하지 않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약 1.6배의 높게 무료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자가 부모는 자손에 의해서 보셔야 하며 여성들이 수발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약 70% 높게 나타났다. 욕구 요인 중에는 노인부양으로 인한 부양자의 심리적 부담이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제약이나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무료라면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집안에 영유아, 수험생, 장애인, 실환자가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무료라면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의사가 약 1.5배 높았다. 이외에도 가구소득수준, 노인부양 경제적 지원여부, 노인부양의 가계부담정도가 통계적으로 $p <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는데 있어 경제적 자원과 가구가 실제로 경험하는 노인부양의 경제적 부담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재가복지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40% 낮아지는 반면, 타 가족이나 형제로부터의 노인부양 경제적 지원이 있는 가구나 노인부양으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구일수록 무료라면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1.7배 높았다. 현재까지 재가복지서비스가 시소득층 중심의 사회적 지원에 집중되어왔던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 보인다.

나름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대비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는 경우를 살펴보면(표 8, 가운데 부분 참조), 부양자와 노인간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수록, 노인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많을수록, 유료라도 쓰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라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에는 무료 이용의

2) 다중명목 로지스틱 분석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반대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할 때에는 계수(coefficients)의 부호방향을 반대로 해서 Odds Ratio를 구하면 된다(Allison, 1999).

사와 마찬가지로 부양자와 노인간의 우애관계나 부양자의 심리적 부담이 각각 1.5배, 2.5배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부부양자 유무와 노인의 건강문제도 $p < .1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내에 주부양자를 도와주는 부부양자가 없을수록, 노인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을수록, 유료라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가족내 주부양자를 도와주는 부부양자가 없거나 피부양노인의 질병/장애가 있는 가구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사용할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vs 이용하지 않겠다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vs 이용하지 않겠다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vs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β (SE)	OR(sig.)	β (SE)	OR(sig.)	β (SE)	OR(sig.)
	선행요인					
부양자 연령	-0.02(0.04)		-0.01(0.04)		0.01(0.02)	
부양자-노인 친밀 관계	-0.51(0.23)	0.60**	-0.50(0.22)	0.59**	0.01(0.15)	
부양자 노인부양가치관 ²	-1.16(0.50)	0.31**	-0.72(0.47)		0.44(0.34)	
가능태 요인						
가구소득수준	-0.43(0.23)	0.65*	0.25(0.21)		0.68(0.17)	1.97***
재가서비스 인지도부	0.04(0.22)		0.14(0.22)		-0.18(0.15)	
타 가족으로부터의 노인부양 연관 강제적 지원정도	0.55(0.23)	1.73*	0.10(0.22)		-0.44(0.16)	0.64***
부부양자 유무	-0.37(0.29)		-0.54(0.28)	0.58*	-0.16(0.23)	
욕구 요인						
부양자 취업여부	-0.08(0.25)		0.29(0.24)		-0.21(0.17)	
부양자 건강상태	0.20(0.34)		0.03(0.33)		-0.17(0.24)	
부양기간	-0.14(0.17)		-0.18(0.16)		-0.03(0.11)	
피부양노인 질환/장애 여부	0.31(0.24)		0.43(0.23)	1.54*	0.11(0.15)	
피부양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0.02(0.13)		0.08(0.12)		0.05(0.09)	
노인부양 경제적 부담	0.55(0.30)	1.73*	0.37(0.29)		-0.18(0.36)	
노인부양 심리적 부담	0.74(0.34)	2.10**	0.94(0.32)	2.56***	0.20(0.23)	
추가된 가족보호 여부	0.46(0.23)	1.58**	0.33(0.21)		-0.12(0.16)	
Model Fit	Chi-square=473.38, df=516, Likelihood ratio=0.91					

* $p < 0.10$, ** $p < 0.05$, *** $p < 0.01$

- 1) 명목간 비교에서는 후자가 순거들(reference category)임. 따라서 첫 번째 칼럼에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경우에 비해서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임.
- 2) 노인부양가치관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보다 전통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을 의미함.
- 3) 다중명목 로지스틱 분석(Multinomial logistic analysis)의 모델적합성 테스트는 Likelihood Ratio이 1.0에 가까워질수록 적합한 모델(Goodness of Model Fit)로 해석함(Allison, 1999).

마지막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무료라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와 유료라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보면, 가능태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8, 세번째 부분 참조). 즉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노인부양을 위해 유료라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약 2배 높아지고 있었으며, 타 가족/형제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무료라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비스에의 접근 방식을 주요하게 구분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 문제와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여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종합해보면, 이용할 의사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에는 선행요인 및 욕구요인이 보다 주요한 역할을 반면,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겠지만 미용지불방식에 있어 무료와 유료로 구분 짓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은 소득수준, 가족의 지원여부와 같은 가능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비스에 대한 인지여부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결과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 일반인의 인식이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인지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구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재반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 가구를 대상으로 고령화사회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노인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Andersen-Newman의 서비스 이용의향 모델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부양자 2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가복지 및 시설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비율이 각각 33%, 10%로 나타나 재가복지서비스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85.9%, 86.9%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약 50%씩 나타난 반면, 시설보호서비스는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91.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기존연구에 비해 재가나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서혜정, 2000; 윤현숙, 2001; 이가옥, 1991; 이혜원, 1995).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가족부양자 자녀 세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연령대가 젊은 층이고 학력 수준이 대부분 고졸이상의 고학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부양자라 하더라도 피부양자의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에 비하여 자녀들의 서비스 이용의사를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윤현숙, 2001; 이가옥 외, 1991)에서 확인된바 있다. 윤현숙(2001)에 의하면 부양자가 자녀인 경우 배우자인 경우에 비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의사가 약 13배, 단기보호서비스가 약 4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가 함께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증대시켜나가는 방향성 속에서도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보호서비스가 보완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이인정, 2001; 한혜경, 1999).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노인들의 민성질환이나 중증장애에 대한 장기요양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자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나 가족(부양자)친화적 고용정책과 같은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향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복지 및 시설보호서비스에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들 서비스를 유료든 무료든 이용할 의사와 상황에 관계없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에는 특정한 상황이 전부터 존재해 왔던 개인적인 특성이나 신념, 태도 등과 같은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과 노인 보호서비스를 필요하게 하는 즉각적인 욕구와 관계된 요인(need factors)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겠지만 비용 지불방식에 있어 무료와 유료로 구분 짓는 경계는 소득수준과 같은 가능티 요인(enabling factors)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노인부양의 사회적 대안으로 정착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단초를 제공한다.

첫째, 노인보호서비스 이용의사에 있어서 욕구요인이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기존의 서비스 이용행위 연구들에서 지적되어온 내용과 일치한다((Bass & Noelker, 1987; Calsyn & Roades, 1993; Kosloski & Montgomery, 1994; Miller & McFall, 1991).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민성질환 및 장기요양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맞물려 노인부양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사회구조가 발달하고 가족구조 및 부양역의식이 변화하면서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족적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온 노인부양에 대해 정부와 지역사회도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양적으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이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도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최성재 외, 1999). 앞으로 재가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수혜대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중산층 노인들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경제적 소득수준만이 아니라 장애 및 질환에 따른 요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김경수, 1997).

둘째,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분하는 경계는 선행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젊은 연령층일수록, 노인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경우일수록, 노인부양은 자식이 해야 한다거나 여성이 일차적인 수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통적인 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일수록 무료든, 유료든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노인과의 우애관계가 서비스 이용의사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정책의 기초는 가족주의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부양을 위한 각종 사회적 지원 서비스들이 확충되고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책적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가족들

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간에 노인부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인자녀 부양자-피부양노인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데(엄명용, 2001), 일상생활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인해 파생되는 세대간의 정서적 갈등이나 어려움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친밀도나 우애관계가 서비스 이용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사실에서 우려하게 되는 상황은 만일 성인자녀와 노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다면 사회적인 노인보호서비스의 증가가 노인부양을 일방적으로 사회공공부문에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인자녀와 노인(부모)과의 가치관이 서로 상충할수록 부양부담은 높고 부양만족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한인주·김태연, 1994)는 사회적인 노인보호서비스 제공과 함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내용은 전통적인 노인부양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황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한 점이다.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상상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노후와 병수발에 대한 자식이나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거부감과 배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등을 느끼거나 어로 인해 가족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Jette, et al., 1995; Kim, 2000). 노인부양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며 '가족내에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노인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더 거부감이 심하며 심리적인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김미경·송다영, 2002). 미국에서도 아시안(Asian)처럼 가족중심의 부양의식이 발달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일수록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지며(Moon et al., 1998; Starrett et al., 1989), 종종 재가복지서비스를 '타인을 집안으로 들여놓거나', '가정사를 남에게 보여야 하는 집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Young et al., 2002). 따라서 사회적 노인보호서비스 홍보는 각종 지원서비스가 만성질환 및 중증장애노인들의 건강유지와 가족들의 안녕 상태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노인부양의 질을 증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보다 대중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비스 이용과 가구 소득수준간의 관계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소득 수준이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의사가 낮았으며, 반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중 비용지불방식에 의한 이용방식 차이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무료라면 사용하겠다는 제한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지만, 일단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이용횟수도 많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Bass & Noelker, 1987). 또한 가구소득이외에도 타 가족/형제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많이 받는 가구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가 강하지만 무료라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에의 접근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잣대는 바로 경제적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더라도 무료라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과 유료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서비스 이용유형에 있어 다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경제적 소득수준

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차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비용이 저렴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외에도 부부양자가 있는 가구일수록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부양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를 덜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 사회적 노인복지서비스 증대는 늘어나는 질환 및 장애인 인구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가족내의 분담과 협력 속에서 사회적 서비스의 과다 의존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장기요양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조사대상의 표본 선정이 무작위표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가족부양자의 성별이나 소득계층을 다양하게 포함한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되도록 세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인식 정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예를 들면 재가복지시설의 존재여부, 접근용이성, 서비스 이용 편리성 등), 심신기능 손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면 보다 적합성 있는 모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윤현숙, 2000; Stommel et al., 1992). 본 연구는 아직까지 재가복지서비스가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주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빈도, 지속성, 이용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 보다 심화된 내용의 서비스 이용행위 연구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수, 1997.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 김미경·송다영, 2002.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한국어성개발원
- 서해경, 2000. “장기요양보호노인과 가족수발자의 서비스 이용의향”, 『고령화사회의 장기 요양보호』, 소화.
- 엄영용, 2001. “가족(성인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의 종류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 가족관계 양상분 석과 개입전략의 제시”, 『한국사회복지학』, 47, pp. 260-242.
- 윤현숙, 2001. “노인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pp. 141-161.
- 이가옥 외, 1991. 『가정봉사원제도의 정착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미진·이가옥, 2001. “노인의 가족부양자 개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pp. 113-124.
- 이인정, 2001. “노인간병가족의 요양시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7, pp. 175-195.
- 이혜원, 1995. “서울시 저택보호노인의 가정봉사원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5(2), pp. 140-156.
- 성경희 외, 2001. 『장기요양보험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홍봉, 1998. 『장애노인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선호도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성재 외, 1999.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 최해경, 1991. “심신기능손상 노인을 돌보는 가족수발자 부담의 한국에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8, pp. 175-2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한은주·김태현, 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1), 95-116.
- 한해경(1999).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의 대체관계 분석-OECD 국가와의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
- Andersen, R. M. & Newman, J. F. 1973. “Societal and individual predictor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Milbank Quarterly*, 51, pp. 95-124.
- Andersen, R. M.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pp. 1-10.
- Allison, P. D. 1999.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 Application*, Cary, NC: SAS Institute.
- Bass, D. M. & Noelker, L. S. 1987. “The influence of family caregivers on elder's use of in-home services: An expande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pp. 184-196.
- Bass, D. M., Looman, W. J., & Ehrich, P. 1992. “Predicting the volume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 Integrating cognitive impairment into the modified Andersen framework", *The Gerontologist*, 31, pp. 33-43.
- Biegel, D. E., Bass, D. M., Schulz, R., & Morycz, R. 1993, "Predictors of in-home and out-of-home service use by family caregivers of Alzheimer's disease patient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 pp. 419-438.
- Calsyn, R. R. & Roades, L. A. 1993, "Predicting perceived service need, service awareness, and service utiliza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1, pp. 59-76
- Houde, S. C. 1998, "Predictors of elders' and family caregivers' use of formal home servic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1(6), pp. 533-543.
- Jette, A. M., Tennstedt, S., & Crawford, S. 1995, "How does formal and informal community care affect nursing home use?", *Journal of Gerontology*, 50B.
- Kosloski, K. & Montgomery, R. 1994, "Investing patterns of service use by families providing care for dependent elder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6, pp. 17-37.
- Kim, J. S. 2000, "Family caregiving for the impaired elderly and family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 pp. 113-129.
- Miller, B., & McFall, S. 1991, "The effect of caregiver's burden on change in frail older person's use of formal help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pp. 165-179.
- Mindel, C. H., Wright, R. 1982, "The use of social services by Black and Whit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 pp. 107-125.
- Logan, J. & Spitze, G. 1994, "Informal support and the use of formal services by older Americans", *The Journal of Gerontology*, 41(1), S26-S34.
- Moon, A., Lubben, J., Villa, V. 1998,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community long-term care services by elderly Korean and non-Hispanic White Americans", *The Gerontologist*, 38(3), 309-316.
- Norgard, T. M. & Rodgers, W. L. 1997, "Patterns of in-home care among elderly Black and White Americans", *The Journal of Gerontology*, 52B, 93-101.
- Starrett, R. A., Wright, R., Mindel, C. H., & Tran, T. V. 1989, "The use of social services by Hispanic elderl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3, pp.1-25.
- Stomme, M., Collins, C., King, S., & Givens, C. 1992, "Assessment of the attitudes of family caregivers toward community services", *Journal of Gerontologist*, 31(6), pp. 756-761.
- Young, H. M., McCormick, W. M., & Vitaliano, P. 2002, "Attitudes toward community-based services among Japanese American Families", *The Gerontologist*, 42(6), pp. 814-825.

Factors affecting Family Caregivers' Preference for Utilization of Community Eldercare Services

Song, Da-Young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family caregiver's preference for utilization of community care services among those who are caring for 65+ elderly parents, and aimed to show how social eldercare services would be settled in Korea. Help-seeking behavior model developed by Andersen and Newman(1973)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preference for utilizing the community care service among 283 family caregivers. Frequency, Chi-square, and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on SAS 6.12 was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about 90% of the family caregivers have preference for community and institute care services. In community care service, about a half comprise the preference with charge while the other without charge. However, about 90% of those for institute care service show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the service. Also, a majority of caregivers like to rely on social eldercare service, rather than family as exclusively responsible, against long-term care for their elderly parents. Multinomi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use versus nonuse of community care services is primarily affected by predisposing factors(including age, carer-caree closeness, and familism) and need factors (including economic or psychological burden of eldercare, and additional role for family care). Enabling factors, such as family income level, economic support from other family members and siblings, and supportive care-helpers, are mainly associated with the preferences of free versus charge in service use. These findings provide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ldercare services in our aging society.

Key words : family caregiver, preference for utilization, community care service